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5161

2016년 2월

석사학위 논문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습득 능력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 난 희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습득 능력

Impacts of gestures on vocabulary acquisition
in 3 to 4 year-ol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2016년 0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 난 희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습득 능력

지도교수 정 부 자

이 논문을 언어치료학 석사학위 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김 난 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김난희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 수 윤 효 진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하 가 영 (인)

위 원 조선대학교 교 수 정 부 자 (인)

2015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목 차

<ABSTRACT>

Ⅰ. 서론 ·····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 2
3. 용어정의 ····· 3
1) 언어발달지체 ····· 3
2) 어휘 습득 능력 : 빠른 연결 ····· 3
3) 몸짓 단서 ····· 4
Ⅱ. 이론적 배경 ····· 5
1. 어휘습득 ····· 5
2. 몸짓과 어휘발달 ····· 7
1) 몸짓의 종류와 특성 ····· 7
2) 몸짓과 어휘 발달의 관계 ····· 8
3.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어휘습득과 몸짓에 관한 선행연구 ····· 11
Ⅲ. 연구 방법 ····· 15
1. 연구 대상 ····· 15
2. 연구 도구 ····· 15
1) 선별검사도구 ····· 15
2) 실험도구 ····· 16
3) 자극어휘 및 몸짓단서에 대한 내용타당도····· 19
3. 연구 절차 ····· 19
1) 예비검사 ····· 2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본검사 ····· 20
4. 자료 분석 ····· 22
1) 자극어휘 이해 평가 ····· 22
2) 자극어휘 표현 평가 ····· 23
5. 통계 분석 ····· 25
6. 평가자간 신뢰도····· 26
Ⅳ. 연구 결과 ····· 27
1.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 ····· 27
1)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 27
2)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 28
2. 자극어휘 표현 유형 차이 ····· 29
1)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의 차이 ····· 29
2) 자극어휘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 기능몸짓, 비율의 차이 ····· 30
Ⅴ. 논의 및 결론····· 32
1.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 ···· 32
2. 자극어휘 표현 유형 차이 ····· 34
3. 제한점 및 제언 ····· 38
참고문헌 ····· 39
부록 ····· 47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 목차

<표-1> 대상아동 배경정보 ····· 15
<표-2> 자극어휘 목록 ····· 17
<표-3> 실험조건 예시 ····· 18
<표-4> 자극어휘 표현 유형 및 정의 ····· 24
<표-5> 자극어휘 표현 유형 예시 ····· 24
<표-6>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기술통계·
····· 27
<표-7>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28
<표-8>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기술통계 ····· 28
<표-9>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 29
<표-10>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 기술통계··· 29
<표-11>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 차이 ····· 30
<표-12>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 차
이의 기술통계 ····· 30
<표-13>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의
차이 ····· 3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그림 목차

<그림-1> 실험조건의 내용과 순서 ····· 22
<그림-2>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의 비율· 30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 목차

<부록-1> 자극물, 자극어휘 및 몸짓단서 ····· 47
<부록-2> 자극어휘 타당도 설문지 ····· 50
<부록-3> 몸짓의 유효성에 대한 타당도 설문지 ····· 52
<부록-4> 자극어휘 이해 평가 검사자극 항목 예시 ····· 55
<부록-5> 자극어휘 표현 평가 검사자극 항목 예시 ····· 55
<부록-6>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평가 기록지 ····· 56
<부록-7> 대상 아동별 자극어휘 및 표현 반응 빈도 ····· 57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BSTRACT>

Impacts of gestures on vocabulary acquisition in 3 to 4 year-old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Kim, Nan-Hee
Advisor : Chung, Bhu-Ja
Department of Speech-Language Pat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acquisition and expression of nonsense words as suggested in 3 conditions of control condition, shape gesture cues, and function gesture cues.

Survey was conducted on 10 children of 3 to 4 years old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Children selected were those whose language age measured by Preschool Receptive-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was under 10%ile in comparison with their chronological age or showed delay of 12 months or more, and who had normal average of 80 points or more on Korean-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 Revised(K-Leiter-R). This study divided a total of 9 objects according to 3 condition cues (control condition cues, shape gesture cues, and function gesture cues), and presented stimulation vocabulary of nonsense words to the children, and then had them operate the objects for about 2 minutes. At the end of the session of each experimental condition, assessment on vocabulary understanding and expression were carried out.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rate of understanding of stimulation vocabulary according to whether there was a gesture cue or not, the rate of understanding of stimulation vocabulary according to gestures cues, and the rate of spoken language and gestures at the time when stimulation vocabulary was expressed. Whe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timulation vocabulary was expres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te of shape gestures and the rate of function gestures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results show that there was no difference for vocabulary acquisition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between suggestion of gesture cues along with spoken language and suggestion of spoken language only; but there was differences when the word concerned was expressed. It can be explained that gesture cues had no effect on vocabulary acquisition because of the low frequency of communication, difficulty with fast connection, low stimulation frequency of clues, and defects in implicit learning ability of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On the other hand, when the children expressed vocabulary, they used function gestures more frequently and more significantly than shape gestures suggested. The reason for this was supposed that the children experienced the functions of the objects concerned too when they played with the objects along with stimulation vocabulary. An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children not only created expressions about objects with gesture that were never suggested but also mainly expressed gestures about the functions of the objects that they had never learned. Therefore, programs are expected to be developed and applied so that children can learn vocabulary more easily with inducement of vocabulary treatment by direct experience and suggestion of gesture cues along with that when vocabulary treatment is carried out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language dela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은 2세경 어휘 폭발기(vocabulary spurt)를 거치면서 6세까지 많은 어휘를 습득한다(Bloom, 1973). 특히, 2-5세 시기에 사용하는 빠른 연결(fast mapping) 전략이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빠른 연결이란 새로운 어휘에 대해 최소한의 노출로 낱말이 지칭하는 사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고 해당 어휘의 음운형태와 연합시켜 어휘를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한다(Carey & Bartlett, 1978; Rice, 1989). 이 시기에 발달하는 빠른 연결 전략은 언어발달기 아동이 어휘를 신속히 습득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학습전략이다(Golinkoff & Hirsh-Pasek, 1999). 선행연구에서는 자극어휘의 노출빈도(Rice, Oetting, Marquis, & Pae, 1994; 김강애, 1999), 어휘 간 운율 및 음운적 유사성(김성수, 2005), 시각적 단서(Weismer & Helsketh, 1993) 등이 빠른 연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지적하였다. 그 중에서도 몸짓을 포함하는 시각적 단서가 새로운 어휘의 습득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고 밝히는 연구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Capone, 2007; Capone & McGregor, 2005; Weismer & Helsketh, 1993; 이진희, 2008; 이효미, 2011; 지정희, 2012).

어휘의 습득, 혹은 빠른 연결과 몸짓 단서에 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새로운 어휘와 몸짓 단서를 함께 제시한 조건과 어휘만을 제시한 조건을 비교했을 때 몸짓 단서가 포함된 조건에서 어휘의 이해 및 산출에 유의한 증가가 있었음을 보여주었다(Capone, 2007; Capone & MaGregor, 2005; 이진희, 2008; 이효미, 2011; 지정희, 2012). 이는 아동이 사물이 내포하는 의미적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모양이나 기능과 같은 몸짓단서가 통합적으로 제시되는 것이 더 효과적이며 이러한 통합적 제시가 의미적 표상을 더 쉽게 이끌어내기 때문이다(Capone & McGregor, 2005; Capone, 2007). 국내 연구에서도 빠른 연결에 영향을 주는 몸짓과 관련된 연구가 실시되었는데 몸짓 단서가 제시된 조건에서 빠른 연결을 통한 어휘습득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하였다(이진희, 2008).

몸짓(gesture)이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추가적이고 상징적인 정보를 전달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 위해 상체 주변에서 손과 팔을 움직이는 것이다(Goldin-Meadow, 2000; McNeill, 1998). 몸짓은 말과 언어의 발달을 촉진하고 예측하는 중요한 수단이며(박현주, 2013; 안소정・방희정・이순행, 2010; Nicoladis, 2002; Ozcaliskan & Goldin-Meadow, 2009), 아동이 발달함에 따라 그 유형도 다양해진다(안소정, 2010; 장유경・최윤영・김소연, 2005).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은 빠른 연결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일반아동에 비해 첫 낱말 산출 시기가 늦고, 어휘발달의 여러 영역에서 전반적인 결함을 보인다(Leonard, 1998). 특히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데에 미숙하기 때문에 비구어적인 몸짓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김영태, 2014; Leonard, 1998). Botting 외(2010)는 단순언어장애 아동들이 일반아동과 비슷하게 몸짓을 사용하지만, 일반아동에 비해 구어와 몸짓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과제에서 더 어려움을 보이고 특히 몸짓과 연관된 오류 유형을 더 많이 보인다고 하였다.

현재까지 다양한 장애 영역에서 몸짓을 통한 빠른 연결 능력을 살펴본 연구가 진행 되었으나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몸짓단서조건을 달리하여 아동의 어휘 습득 능력을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영역에서만 결함을 보이는 언어발달지체 아동이 무단서조건, 모양몸짓단서조건, 기능몸짓단서조건의 3가지 단서조건에서 새로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데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이를 통해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인 어휘 중재를 위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2. 연구문제

(1)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몸짓단서조건(무단서조건, 모양단서조건, 기능단서조건)에 따라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①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몸짓단서 유무에 따라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②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몸짓단서조건(무단서조건, 모양단서조건, 기능단서조건)에 따라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2)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자극어휘 표현 시 제시된 몸짓단서조건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①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②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자극어휘의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표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가?

3. 용어의 정의

1) 언어발달지체

언어발달지체란 일반적으로 신경, 청력, 구강구조 및 기능, 동작성 지능 및 비언어적인 기능에서는 뚜렷한 결함을 보이지 않으나 언어능력과 관련된 영역에서 지체나 결함을 보이는 아동을 말한다(Leonard, 1998). 언어발달지체는 동작성지능이 85이상이면서 수용언어발달 혹은 표현언어발달 연령이 생활연령에 비해 1년 이상 지체 혹은 통합언어 발달연령이 생활연령에 비해 1년 이상 지체되는 경우로 정의되었다(Stark & Tallal, 1981; Terrel & Schwartz, 1988). 반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지능검사(K-Leiter-R)는 비언어지능 80을 정상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상발달 아동들이 12개월에 첫 낱말을 산출하는 것에 비해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은 첫 낱말 산출 시기가 지연되고 더불어 어휘량, 어휘다양도, 낱말 찾기, 낱말 재인, 낱말 인출 등의 어휘발달에서의 전반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Leonard, 1998).

2) 어휘 습득 능력 : 빠른 연결

빠른 연결(fast-mapping)이란 아동이 새로운 어휘에 대해 최소한의 노출로 낱말이 지칭하는 사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고 해당 어휘의 음운형태와 연합시켜 어휘를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Carey 1978; Rice, 1989). Rice, Buhr와 Nemeth (1990)은 빠른 연결 습득 단계를 다섯 단계로 정리하였는데 가장 먼저, 제시 된 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휘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를 시작으로 새로운 어휘를 확인하는 단계를 거쳐 언어적 및 비언어적 문맥을 통해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단계, 새로운 어휘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를 지나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어휘를 저장함으로써 빠른 연결을 통한 어휘습득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3) 몸짓 단서

몸짓(gesture)이란 상징적인 표현을 위해 상체의 앞 공간에서 손과 팔을 움직이는 것이다(McNeill, 1998). 몸짓의 한 유형인 도상적 몸짓(iconic gesture)은 의미와 관련된 형태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묘사하기 때문에 그 의미를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몸짓을 말한다(Poggi,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몸짓 단서(gestures cues)는 모양과 기능을 표현하므로 도상적 몸짓으로 구성하였다. 몸짓단서는 정적 상태에서 사물의 모양을 표현하는 모양몸짓단서조건(이하 모양단서조건), 동적 상태에서 사물의 기능적인 움직임을 표현하는 기능몸짓단서조건(이하 기능단서조건)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Ⅱ. 이론적 배경

1. 어휘의 습득

정상적으로 발달하는 아동은 2세경부터 어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6세까지 빠른 속도로 어휘를 습득한다(Bloom, 1973). 이렇듯 짧은 기간 내에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이유는 아동이 이 시기에 대상과 어휘를 빠르게 연결하여 기억하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다(Carey, 1978). 빠른 연결이란 아동이 최소한의 노출만으로도 낱말이 지칭하는 사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고 해당 어휘의 음운형태와 연합시켜 어휘를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Carey & Bartlett, 1978; Rice, 1989). Rice, Buhr와 Nemeth(1990)는 아동의 어휘 습득 단계를 정리하였는데 (1) 제시 된 어휘에 주의를 기울이는 단계, (2) 새로운 어휘를 확인하는 단계, (3) 언어적 및 비언어적 맥락을 통해 새로운 어휘의 의미를 유추하는 단계, (4) 새로운 어휘에 의미를 부여하는 단계, (5) 새로운 어휘를 저장하는 단계가 그것이다.

빠른 연결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자극 빈도, 운율 및 음운적 특성, 시각적 단서, 새로운 어휘의 언어적 특성 등이 있다(이진희, 2008). Rice 외(1994)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어휘의 노출 빈도를 0회, 3회, 10회로 달리하여 자극의 노출빈도에 따라 새로운 어휘를 이해하는 정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휘의 노출빈도가 높을수록 새로운 어휘를 쉽게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김강애(1999)가 어휘의 노출빈도를 1회와 5회로 했을 때 지적능력이 3세인 아동과 생활연령 3세의 일반아동이 새로운 어휘의 이해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하였는데, 일반아동은 노출 빈도에 따라 어휘 습득의 이해 정도에 차이가 없었으나 지적장애 아동은 노출 빈도가 많아질수록 이해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고 하였다.

김성수(2005)는 어휘 간 음운적 유사성이 빠른 연결 수행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생활연령 및 언어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실제어휘와의 음운적 유사성 정도를 달리하는 세 유형의 검사 어휘들을 제시하고 익숙하지 않은 사물과 익숙한 실제 사물 가운데서 참조물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연구결과 세 집단 모두 빠른 연결 수행 시 새로운 이름을 새로운 사물에 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합하는 상호배타성 전략(mutual exclusivity principle)을 활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상호배타성의 전략이란 하나의 독립체는 오직 하나의 이름만을 가질 것이라는 전제 하에 아동들이 기존의 사물이 아닌 새로운 사물에 새로운 어휘를 연합시키는 것을 말한다(Markman, 1991). 김성수는 단순언어장애 집단은 일반아동 집단보다 실제 어휘와 목표 어휘 간에 음운적 유사성이 높아질수록 상호배타성 전략을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고 설명하였다. 단순언어장애 아동이 기존 어휘와 음운적으로 유사한 어휘를 새로 학습할 때 특히 어려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어휘 결함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Weismer와 Helsketh(1993)는 일반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운율적 특성 및 시각적 단서가 새로운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말속도, 강세뿐 아니라 몸짓단서와 같은 시각적 단서를 제시했을 때 두 집단 모두 말소리의 속도와 시각적 단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였다. 또한 단순언어장애 아동은 말속도가 느릴 때, 강세가 있을 때, 몸짓이 함께 동반 될 때 새로운 어휘를 더 잘 습득하였다고 보고하면서 몸짓과 같은 시각적 단서가 동반될 경우 빠른 연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하였다. 몸짓단서에 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로는 27~30개월의 유아 19명을 대상으로 모양조건, 기능조건, 통제조건의 3가지 조건에 따라 새로운 사물에 부여된 무의미 어휘를 학습하는 능력이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 본 Capone과 McGregor(2005)의 실험을 참고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유아들은 6개의 새로운 사물을 가지고 놀면서 사물의 이름을 듣게 되는데 2개의 사물은 모양조건, 2개의 사물은 기능조건을 제공하고 나머지 2개의 사물은 통제조건에서 제시하였다. 그 후 유아로 하여금 제시한 어휘에 맞는 사물을 찾게 한 결과 실험조건인 기능조건과 모양조건에서 적은 단서를 필요로 하였으며, 기능단서보다 모양단서에서 단서가 없어도 단어를 더 잘 기억해 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모양단서 조건이 빠른 연결과 더 많이 관련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 이를 통해 사물의 의미 지식은 모양이나 기능몸짓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음을 증명하였으며, 단어 찾기는 관련된 몸짓과 연결되는 의미표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행동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아동이 새로운 단어를 표상하는데 사물에 관한 어휘뿐 아니라 모양, 기능에 대한 정보가 통합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 Capone과 McGregor(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Capone(2007)은 27~30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몸짓이 의미적 표현을 이해하는데 보조적 수단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자는 아동의 구어와 몸짓을 통해 사물의 기능을 설명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을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아동들은 몸짓을 동반하여 사물을 설명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앞 선 어휘 학습 경험을 반영하여 몸짓과 구어를 조합하여 산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몸짓이 어휘를 이해하고 표현하는 과정을 반영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다양한 요소가 빠른 연결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빠른 연결은 아동의 어휘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몸짓과 같은 시각적 단서가 함께 제시되었을 때 빠른 연결을 통한 어휘습득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반아동과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몸짓을 통한 시각적 단서를 제공하여 어휘습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2. 몸짓(gesture)과 어휘 발달

1) 몸짓의 종류와 특성

아동은 생후 9-10개월경부터 의도적 몸짓과 음성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하기 시작한다(최윤희, 1996). 이 시기부터 아동은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보를 알리기 위해 몸짓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발화에 추가적인 정보를 포함하게 된다(Goldin-Meadow, 2000).

몸짓은 크게 지시적 몸짓(deictic gesture)과 표상적 몸짓(representational gesture)으로 나뉜다. 지시적 몸짓은 사물을 보여주거나 요구하는 것과 같은 도구적 몸짓(instrumental gesture)과 손을 뻗어 가리키는 것과 같은 지적하기(pointing)를 포함한다. 또한 표상적 몸짓에는 '예', '아니오'의 의미로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것과 같은 관습적 몸짓(conventional gesture)과 의미와 관련된 사물의 형태나 기능을 묘사하는 도상적 몸짓(iconic gesture)이 포함된다(Capir ci et al., 1997; 박현주, 2013). 그 중에서도 표상적 몸짓의 한 유형인 도상적 몸짓은 지시대상을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몸짓이라는 특징을 지니는데 이는 도상적 몸짓이 그 지시대상의 움직임이나 형태, 특성을 묘사해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시하는 대상을 쉽게 떠올릴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 있는 이유는 몸짓이 지시대상과 비슷하다는 도상성(iconicity)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Jüurgen, 2008).

몸짓은 연령에 따라 그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장유경・최윤영・김소연(2005)은 한 단어 시기 영아의 몸짓발달과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본 결과 초기 의사소통 상황에서 영아들은 가리키기와 끌고 가기, 짝짜꿍, 곤지곤지 등과 같은 관습적 몸짓(Conventional gesture)을 주로 보였으며, 사물의 특징을 표현하는 도상적 몸짓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적으로 관습적 몸짓의 비율이 줄어들었다고 하였다. 안소정・방희정・이순행(2010)은 24~27개월의 아동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아동의 몸짓 사용 비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그 결과 월령에 따른 몸짓 사용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관습적 몸짓은 점차적으로 감소했으나 도상적 몸짓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두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 연령의 차이로 인해 도상적 몸짓의 비율이 연구에 따라 서로 다른 듯 하지만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안소정・방희정・이순행(2010)은 언어발달정도가 도상적 몸짓 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생활연령보다 언어발달정도가 도상적 몸짓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 몸짓과 어휘 발달의 관계

몸짓은 연령에 따라 변화하며 언어가 발달함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지기도 한다. 지시적 몸짓과 표상적 몸짓의 하위 항목인 관습적 몸짓은 한 단어 발화를 하기 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부족한 발화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안소정・방희정・이순행, 2010). 또한 아동이 나이가 들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몸짓의 유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한다. Nicoladis(2002)는 3세 6개월에서 4세 11개월 사이의 이중 언어를 사용하는 학령 전 아동이 두 언어에서 어떻게 몸짓을 사용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아동은 자신이 능숙하지 않은 언어로 의사소통 할 때 지시적 몸짓(가리키기, 도구적 몸짓)과 표상적 몸짓(관습적 몸짓, 도상적 몸짓) 중 표상적 몸짓에 속하는 관습적 몸짓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능숙한 언어로 의사소통 할 때에는 높은 비율의 도상적 몸짓을 보였음을 알 수 있었다. Nicoladis는 이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낮은 언어능력을 보충하기 위해 사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몸짓을 사용하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이며, 이는 몸짓이 보충적 역할하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아동은 한 단어 표현을 시작 한 후에 몸짓과 단어가 조합되는 시기를 지나고, 점차 구어만을 사용해서 표현하기 시작한다(안소정・방희정・이순행, 2010). 즉, 두 단어 조합에 도달하기까지 몸짓은 언어 표현을 위한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발판 역할을 하는 셈이다. Capir 외(1997)는 1세 4개월부터 1세 8개월의 아동 12명으로부터 단어와 몸짓 조합에 초점을 맞추어 자발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두 단어 조합으로 전이되는 동안 몸짓과 몸짓-어휘 조합 사용이 나타날 뿐 아니라, 그 증가 속도도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Ozcaliskan과 Goldin- Meadow(2009)도 14~34개월의 유아 40명을 대상으로 몸짓-구어 조합과 함께 나타난 언어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4~26개월에는 “주세요”하며 손바닥을 펴는 것과 같은 관습적 몸짓을 사용하는 반면 30개월 이후부터는 몸짓과 구어를 조합하여 표현할 뿐 아니라 도상적 몸짓도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에 연구자들은 몸짓이 구어표현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조역할을 하며, 자연스럽고 자동적인 구어표현에 익숙해지면 몸짓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즉, 몸짓은 두 단어 조합을 산출하기 위한 준비된 신호일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선행연구들에서는 몸짓이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도 도상적 몸짓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Namy, Campbell, & Tomasello, 2004; 박현주, 2013; 안소정・방희정・이순행, 2010). 도상적 몸짓은 복잡한 발화를 산출하는 능력과 관련되며 언어가 숙달되는 과정에서 활성화되고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는 전략으로서 사용된다(박현주, 2013). 이와 관련하여 Nicoladis, Mayberry와 Genesee(1999)는 구어와 몸짓 사이의 관계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2세~3세 6개월의 이중언어 사용 아동들을 2년 간 종단 연구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2세 아동들이 몸짓 사용, 구어와 몸짓 표현 속도 등에서 성인과 유사한 몸짓을 사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도상적 몸짓의 비율이 언어 발달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몸짓이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발화 능력이 뛰어난 어린 아동들이 발화 능력이 늦은 나이든 아동보다 도상적 몸짓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도상적 몸짓이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와 상관없이 발화능력과 더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Cohen & Borsoi, 1996). 또한 이중언어 사용자는 우세 언어를 사용할 때 더 많은 도상적 몸짓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Nicoladis, Mayberry, & Genesee, 1999) 도상적 몸짓은 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시적 몸짓, 관습적 몸짓과는 다르게 자연스러운 발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몸짓은 어휘발달과 함께 구문발달을 촉진하기도 하는데(Capone & McGregor, 2004; Iverson & Goldin-Meadow, 2005; McEachern & Haynes, 2004), Iverson과 Goldin-Meadow(2005)는 한 낱말에서 두 낱말 조합으로 넘어가는 연령에 속하는 유아 10명을 대상으로 10개월부터 24개월까지 추적조사 하여 몸짓이 유아의 어휘 뿐 아니라 구문발달과도 관련이 있음을 발견하였다. 즉, 이 연구의 유아들은 초기에는 몸짓을 주로 사용하다가 점차 구어를 사용하였는데, 특히 몸짓과 구어를 조합하여 사용하는 빈도가 높았던 유아에게서 두 낱말 조합이 더 빠르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몸짓의 변화가 언어의 변화에 앞설 뿐만 아니라 초기 몸짓은 구문발달에 영향을 미치면서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준비단계라고 설명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McEachern과 Haynes(2004)도 평균 15개월의 일반유아 10명을 대상으로 구어와 몸짓의 조합이 두 단어 조합에 앞서 나타나는 전이적 현상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6개월간 조사 끝에 유아가 보이는 몸짓과 구어의 조합이 두 단어 조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일반아동의 몸짓-구어 조합의 시작은 어휘 산출을 앞서거나 동시에 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몸짓을 포함한 의사소통 행동이 구문발달을 촉진하며 몸짓-구어 조합은 단단어에서 단어조합으로 전환하는데 관여하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시사한다.

국내 연구에서 김의향(2006)은 96명의 7-24개월 유아를 대상으로 몸짓과 어휘 습득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월령에 따라 몸짓의 유형이 다르게 나타났는데, 특히 지시적 몸짓은 유아의 수용 어휘 수와 유의한 관계가 있고, 표상적 몸짓은 유아의 수용 어휘 수와 표현 어휘 수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몸짓은 어휘 습득과 관계가 있으므로 7개월 이후부터 아동의 몸짓을 민감하게 이해하는 것은 의사소통 의도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휘력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

Capone과 McGregor(2005)은 27-30개월의 유아들 19명을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물에 대해 무의미 낱말로 학습하도록 했을 때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는 몸짓 단서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 통제 조건에서 훈련된 낱말을 산출할 때보다 몸짓 조건에서 훈련된 낱말을 산출할 때 더 적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즉, 이 연구결과는 구어 모델만을 제공할 때보다도 구어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함께 몸짓 단서를 제공했을 때 새로운 낱말을 학습하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앞선 연구결과들(McEachern & Haynes, 2004; 김의향, 2006)을 지지한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도상적 몸짓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자연스러운 표현을 위한 전략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아동에게 새로운 어휘를 가르칠 때 몸짓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매우 유용한 중재전략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물의 모양과 기능을 묘사하는 도상적 몸짓단서를 의미적 단서로 제시했을 때 아동이 모양과 기능 중 어느 단서로부터 더 유용한 도움을 얻는지 살펴봄으로써 어휘학습을 위한 중재전략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3.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어휘습득과 몸짓에 관한 선행연구

일반아동은 언어발달 단계에서 1세경에 첫 낱말을 산출하며 이후 2세경 두 단어 조합이 나타나고, 이후 세 단어 조합의 기본적인 구문 형성기에 도달하게 된다(김영태, 2014). 반면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여러 언어영역의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려, 1년 이상 지체를 보이기도 한다(Stark & Tallal, 1981; Terrel & Schwartz, 1988).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언어의 다양한 영역에서 오류를 보이는데(김영태, 2014), 그 중에서도 특히 첫 낱말 산출시기, 어휘량 및 어휘 다양도, 낱말 찾기, 낱말 재인, 낱말 인출, 낱말 학습과 같은 의미영역에서 결함이 많이 나타난다(Leonard, 1998).

언어발달지체아동이 보이는 의미론적 결함 중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초기 어휘 산출의 지체이지만, 산출한 어휘의 유형은 나이가 어린 일반아동과 거의 유사하며, 어휘발달에서도 정상발달아동과 유사한 습득속도와 패턴을 보인다(Rice et al., 2010).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새로 학습한 어휘를 새로운 사물에 확장해서 산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이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어휘를 습득할 수 있는 빠른 연결(fast-mapping) 혹은 어휘 간의 연합(association)을 형성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Rice, Buhr, & Oetting, 1992). Oetting, Rice와 Swank (1995)는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짧은 비디오를 보여주며 단순한 언어구조의 이야기를 들려주어 친숙하지 않은 어휘를 학습하도록 했는데, 대상아동들은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 수준이 또래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고 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또한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은 정상 발달하는 아동들에 비해 의사소통 의도를 미숙하게 표현하고, 정확한 구어로 표현하기보다는 주로 몸짓, 가리키기, 비구어적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을 더 많이 시도한다고 알려져 있다(Leonard, 1998; Rescola & Fechnay, 1996). 언어장애아동의 언어와 몸짓에 대해 살펴본 연구에 따르면 언어가 손상되는 경우 몸짓이 보상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장애아동의 경우 일반아동에 비해 몸짓의 비율이 많으며, 특히 언어장애아동이 보이는 표현상의 미숙함은 잦은 몸짓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Iverson & Braddock, 2011). Thal과 Tobias(1994)도 18~36개월의 말 늦은 아동 17명을 대상으로 자발 몸짓과 모방 몸짓 표현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 결과 '말 늦은 아동'은 또래 아동에 비해 모방 몸짓 및 자발 몸짓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연구에서는 홍경훈·김영태(2005)이 18~36개월의 말 늦은 아동을 대상으로 표현 어휘 발달 예측을 위한 의사소통 의도 산출 특성에 관한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전체 '말 늦은 아동' 중 정상 수준 미달 집단은 정상 수준 도달 집단에 비해 몸짓 출현율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표현 어휘 발달 예측에 대한 상관관계에서 몸짓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Thal, Tobias와 Morrison(1991)은 한 단어 표현 수준의 18~29개월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말 늦은 아동의 몸짓 산출에 관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사물의 기능에 대해 몸짓으로 산출하는 과제를 실시한 결과 초기에는 말 늦은 아동이 또래 아동에 비해 모든 몸짓의 산출이 적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후속 연구에서 언어발달을 회복한 늦되는 아동(late bloomers)들은 또래 아동과 유사한 패턴의 몸짓 수행 능력을 보인 반면, 지속적으로 언어 발달 지연을 보이는 말 늦은 아동들은 늦되는 아동들에 비해 모든 몸짓 과제의 수행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발달에 문제를 보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몸짓의 이해와 표현에 관해 연구한 Botting 외(2010)는 4세 3개월~7세 4개월 단순언어장애아동 20명과 동일 연령의 일반아동 19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단순언어장애아동은 몸짓표현에서 또래와 동일하게 수행하였으나 구어와 몸짓을 통합하여 이해하는 과제에서는 어려움을 보였다. 또한 두 집단이 보인 오류패턴유형을 분석하였을 때 단순언어장애아동은 몸짓 기반의 오류를 많이 보인 반면, 일반아동 집단은 의미 기반의 오류를 주로 보이며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수진(2011)은 말 늦은 아동과 일반아동 각 10명을 대상으로 3가지 유형의 몸짓(지시적 몸짓, 관습적 몸짓, 표상적 몸짓)으로 몸짓의 사용 빈도 및 몸짓과 어휘 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용 간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말 늦은 아동에 비해 일반 아동은 의사소통적 몸짓의 사용 빈도가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말 늦은 아동은 일반아동 보다 지시적 몸짓의 사용 빈도는 높았지만, 표상적 몸짓의 사용 빈도는 유의하게 낮았다. 몸짓과 어휘 사용 간의 상관관계는 말 늦은 아동은 몸짓과 다른 낱말 수 간에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빠른 연결에 영향을 주는 몸짓과 관련된 연구는 일반 아동(이진희, 2008), 말 늦은 아동(지정희, 2012), 지적장애 아동(이효미, 2011)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진희(2008)는 2~5세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새로운 사물을 제시 할 때 모양몸짓단서, 기능몸짓단서, 무단서의 총 3가지 실험 조건에서 빠른 연결을 통한 어휘 습득에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몸짓단서조건 간에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며 몸짓 단서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보다 모양몸짓 및 기능몸짓단서를 제공한 상황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고, 연령 간 차이 또한 유의미하였다. 이는 취학 전 아동에게 있어서 모양몸짓단서와 기능몸짓단서가 어휘를 효과적으로 습득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효미(2011)는 지적장애 아동 15명(생활연령 평균 7세9개월)과 정신연령을 일치시킨 4세 일반아동 15명을 대상으로 의미 단서에 따른 빠른 연결 능력을 실험하였다. 이진희(2008)의 실험조건과 유사하게 단서 없음, 모양의미단서, 기능의미단서 총 3가지의 조건에서 차이를 분석한 결과 두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연구자는 이에 대해 지적장애아동들이 정신연령에 상응하는 어휘 습득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지정희(2012)도 2~3세 말 늦은 유아와 일반유아 총 26명을 대상으로 몸짓노출조건과 몸짓비노출조건 2가지 상황에서 8개의 어휘에 대한 빠른 연결능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 간 빠른 연결을 통한 어휘 이해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말 늦은 유아 집단이 일반유아 집단에 비해 새로운 어휘에 대한 이해점수가 낮았을 뿐 아니라, 몸짓 노출 유무에 따라 새로운 어휘를 이해하는 점수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말 늦은 유아는 새로운 단어를 의미와 연결시키는 빠른 연결에서 정상발달 유아에 비해 낮은 수행을 보였는데, 연구자는 이를 말 늦은 유아집단이 기본적으로 부족한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위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사물의 모양이나 기능에 관한 몸짓이 어떤 방식으로든 빠른 연결과 관련되며, 아동이 사물에 관한 의미를 표상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하지만 모양과 기능에 관한 몸짓 중 어느 조건이 아동의 의미표상을 돕는 지에 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듯하다. 따라서 본 연구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몸짓을 모양과 기능의 두 조건으로 나누어 어느 조건이 언어발달지체아동의 어휘습득에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이나 언어치료실에 다니고 있는 3~4세의 언어발달지체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과정과 절차를 양육자에게 알려 동의를 얻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대학교 기관윤리심의위원회(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얻은 후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Stark와 Tallal(1981)의 언어발달지체아동 정의 기준에 따라 (1)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 - Expressive Language Scale, PRES :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로 측정한 통합언어연령이 자신의 생활 연령과 비교하여 10%ile 미만에 해당하거나, 12개월 이상의 지체를 보이며, (2)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orean-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 Revised, K-Leiter-R : 신민섭・조수철, 2012)결과 정상기준인 80점 이상에 해당하고, (3) 조음 및 말 산출을 위한 구강의 구조 및 기능에 결함을 동반하지 않으며, (4) 시・청각 장애, 정서 및 행동문제나 사회성 결함 및 신경계의 결함을 수반하지 않는 아동들로 선정하였다.

<표-1> 대상아동 배경정보(n=10)

성별	생활연령(개월)	비언어성 지능검사
	평균(표준편차)	평균(표준편차)
남(n=6), 여(n=4)	44(6.74)	92(6.27)

2. 연구 도구

1) 선별검사도구

(1)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Preschool Receptive - Expressive Langu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Scale, PRES :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

대상아동에게 만 2-6세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능력을 평가하는 PRES를 실시하였다. 검사 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언어발달에 지체가 있는지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으며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 간의 차이를 평가 할 수 있다. 문항간의 내적일치도(internal consistency)는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모두 .95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재검사 신뢰도 또한 수용연령 .779, 표현연령 .919, 통합연령 .817로 높게 나타났다. 검사 내용은 언어의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측면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언어의 수용, 표현 측면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언어 영역들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2)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Korean-Leiter International Performance Scale - Revised, K-Leiter-R : 신민섭・조수철, 2012)

비언어성 지능을 확인하기 위해 K-Leiter-R을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만 2-7세 아동의 인지기능을 평가한다. 시지각적 기억력 및 주의력에 대한 평가와 추론능력 및 시각화 능력과 관련된 비언어적 지능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시각화, 추론 및 공간 능력과 관련된 비언어적 지적 능력을 알아보는 9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진 '시각화 및 추론'(VR) 검사와 비언어적인 주의력 및 기억력을 알아보는 10개의 소검사로 이루어진 '주의력 및 기억력'(AM) 검사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항목들 간의 상관을 통한 검사의 내적 합치도 신뢰도 계수(Chronbach's α)는 .51 ~ .81로 나타났으며,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42 ~ .92로 나타났다.

2) 실험 도구

(1) 자극물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자극물은 Capone(2007)의 연구에서 제시한 도구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연구에 사용되는 사물들은 주방용품으로 모두 점토놀이 시 사용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며 조작이 간편한 사물들로 구성하였다. 사물 선정 기준은 1) 아동에게 새롭고 낯설며, 2) 모양과 기능이 각각 구별되고, 3) 손으로 잡고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4) 그 명칭을 알지 못하는 사물로 정하였다. 자극물이 아동에게 새로운 사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먼저,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는 3세와 4세 일반아동 각 5명의 아동에게 연구자가 1차로 선택한 18개의 사물을 제시하고 설명해보도록 하였다. 각 사물을 한 개씩 아동에게 제시한 다음 사물의 이름, 사용 방법 및 용도에 관하여 질문한 결과 아동이 자극물의 이름 및 사용방법을 알고 있거나 아동에게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물 9개를 제외하였고, 나머지 총 9개의 주방용품이 최종 자극물로 선정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자극물은 <부록-1>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2) 자극 어휘

자극어휘는 아동이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무의미 어휘(nonsense word) 9개로 연구자가 언어병리학 전공 교수 1인의 자문을 얻어 구성하였다. 동사에 비해 명사가 아동의 빠른 연결하기에 더 영향을 미치고, 쉽게 습득되는 품사라는 연구결과(한지연・정옥란, 2000)를 바탕으로 자극어휘는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인 명사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의 연령이 3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 할 때, 음소 난이도가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음발달상 비교적 늦은 연령대에 습득되는 /ㅈ, ㅊ, ㅉ, ㅅ, ㅆ, ㄹ/를 제외하고 초기에 발달되는 음소를 바탕으로 나머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였으며 단순한 음운구조인 CVCV구조의 2음절 어휘로 구성하였다(김성수, 2005). 연구에 사용된 자극어휘 목록은 <표-2>에 제시하였으며, 자극물 별로 사용된 자극어휘 목록은 <부록-1>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표-2> 자극어휘 목록

까두, 트배, 가퍼, 뽀매, 포누, 떠미, 허꼬, 카대, 느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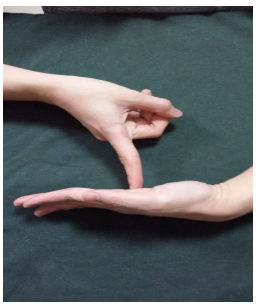
(3) 몸짓단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몸짓단서는 통제조건(이하 무단서조건), 모양몸짓단서조건(이하 모양단서조건), 기능몸짓단서조건(이하 기능단서조건)의 3가지 조건으로 구성하였다. 무단서조건이란 아동에게 몸짓 단서는 제시하지 않고 각 사물에 해당하는 자극어휘만을 구어적으로 제공하는 조건을 말한다. 모양단서조건이란 자극어휘와 사물의 모양을 묘사하는 몸짓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을 말한다. 기능단서조건이란 자극어휘와 사물의 기능을 묘사하는 몸짓을 함께 제공하는 조건을 말한다(Capone & McGregor, 2005). 이러한 3가지 실험조건은 선행연구(Capon & McGregor, 2005; Capone, 2007)에서 실시한 조건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본 연구에 맞게 연구자가 수정하여 적용한 것이다. 3가지 실험조건의 예시는 아래 <표-3>에 제시하였으며, 실험조건에 따른 각 사물의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에 대해서는 <부록-1>에 자세하게 제시하였다.

<표-3> 실험조건 예시

제시 자극물 및 자극어휘	제시 조건	제시 방법
 /까두/	무단서 조건	사물에 해당하는 자극어휘 만을 제시 (예: “이것은 /까두/예요”)
	모양 단서 조건	 사물에 해당하는 자극어휘와 모양몸짓 함께 제시 (예: “이것은 /까두/(+왼쪽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편 다음 오른손 검지손가락을 왼쪽 손바닥 중앙에 세운다)예요”)
	기능 단서 조건	사물에 해당하는 자극어휘와 기능몸짓 함께 제시 (예: “이것은 /까두/(+오른손을 주먹을 쥔 다음 위에서 아래로 누른다)예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자극어휘 및 몸짓단서에 대한 내용타당도

(1) 자극어휘에 대한 내용타당도

자극어휘가 무의미어휘로 타당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4명(언어치료학 박사수료 3명, 임상경력 8년의 언어치료학 석사학위 1명)에게 내용타당도 검증을 의뢰하였다. 내용타당도 지수(Context Validity Index)를 산출하기 위해 Fehring(1987)이 제시한 각 점수별 가중치 .25씩을 부여하여 문항마다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평균 점수를 산출하였다(김향희 외(2008)에서 재인용). 전문가들에게 자극어휘 목록을 제시하고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각각의 자극어휘 문항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 지수는 .89로 평가되어 자극어휘로서 타당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2>에 제시하였다.

(2) 몸짓단서에 대한 내용타당도

사물의 모양과 기능에 따라 몸짓이 적절하게 묘사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해 총 9개의 사물에 대해 임상경력 3년 이상 13년 미만인 언어재활사 2급을 소지한 언어치료사 5명에게 의뢰하여 내용타당도를 평가하였다. 모양몸짓의 경우 먼저 각 사물의 사진과 모양몸짓사진을 함께 제시한 뒤 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기능몸짓의 경우 각 사물의 사진과 기능몸짓영상을 제시하고 5점 척도로 몸짓의 타당도를 평가하도록 한 다음 각 점수별 가중치 .25씩을 부여하여 문항마다 받은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내용타당도 지수는 모양몸짓 .76, 기능몸짓 .77로 각각 평가되었다. 사물의 모양과 기능에 따라 몸짓이 적절하게 묘사되었는지 타당도 검증을 위해 사용된 설문지는 <부록-3>에 제시하였다.

3. 연구 절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1) 예비검사

예비검사는 생활연령 3세와 4세의 일반아동 각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를 통해 검사 소요시간, 진행 과정상의 문제점, 검사의 수정여부, 검사에 대한 아동의 반응성 등을 검토하였다.

예비검사 결과에 의하면 검사 소요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였다. 초기에 계획했던 진행과정에 따라 3회기에 걸쳐 자극어휘를 제시한 다음, 4회기에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평가를 실시한 결과 예비검사대상 아동들은 시간적 공백으로 인해 이전 회기에 실시했던 자극어휘를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보였다. 따라서 본 검사에서는 한 회기 내에 자극어휘 제시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조정하여 시간적 공백으로 인한 기억상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그 외에 아동들은 검사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므로, 동일한 검사를 사용하여 본 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2) 본검사

(1) 검사 환경

모든 실험은 분리된 방에서 개별적으로 수행하였다. 대상자는 모두 광주 소재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들이었으므로 검사는 아동이 소속된 기관에서 제공한 독립된 공간이나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었다. 본 실험은 아동마다 선별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3회기에 걸쳐 방문 한 이후 네 번째 회기에 이루어졌으며, 평균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2) 자극어휘 및 몸짓 제시

총 9개의 사물을 3가지 단서조건(무단서조건, 모양단서조건, 기능단서조건)에 따라 나누어 자극어휘를 제시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실험순서는 Capone(2007)의 연구방법을 따랐으며, 본 연구에 알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검사자가 먼저 사물을 보여준 뒤 아동 앞에 제시하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보여주는 물건으로 우리 점토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놀이를 할거예요. 이것은 ○○(자극어휘)예요.”라고 말하며 아동에게 사물을 제시하였다. 무단서조건에서는 자극어휘만, 모양단서조건에서는 자극어휘와 모양몸짓단서를 함께, 기능단서조건에서는 자극어휘와 기능몸짓단서를 함께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모양단서조건에서는 “이것은 /까두/(+모양몸짓단서)예요”라고 제시하며, 기능단서조건에서는 “이것은 /까두/(+기능몸짓단서)예요”라고 제시하였다. 각 조건별로 할당된 3개의 사물마다 자극을 3회씩 제시하였다. 자극제시 후 아동이 2분정도 사물을 조작하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조건의 내용과 순서는 <그림-1>과 같다.

(3) 자극어휘 평가

가. 자극어휘 이해 평가

자극어휘 평가 시 총 3개의 사물 사진을 제시하여 검사자가 언급하는 사물 사진을 고르도록 하였다. 자극어휘 이해 평가 검사지는 REVT 수용 어휘이해력 검사와 유사한 형식으로 구성하며, 한 번에 제시되는 사진은 목표 사물을 포함하여 총 3개의 사물 사진으로 구성하였다. 검사 항목은 노트북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제시하며 자극어휘 수와 동일하게 검사 문항은 총 9개로 구성하였다. 먼저 아동이 과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익숙한 사물사진을 가지고 연습과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이 그림들 중에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가리켜 봐요. 컵 어디 있나요?”라고 질문한 후 아동이 3개의 익숙한 그림 중에 찾도록 하였다. 아동이 2회 이상 정반응을 보일 때까지 이와 같은 연습과제를 실시하고, 이후 자극어휘 이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평가는 검사자가 말한 “○○ 어디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듣고 제시한 3개의 그림(목표자극 1개, 관련 없는 자극 2개) 중에서 아동이 가리키는 반응을 기록하였다. 만일 아동이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한 번에 여러 사물을 가리키는 경우 한 번 더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 반응을 기록하며, 아동이 수정하는 경우 마지막에 보인 반응을 기록하였다. 자극어휘 이해 평가 검사 자극 항목 예시는 <부록-4>에 제시하였으며, 자극어휘 이해 평가 기록지는 <부록-6>에 제시하였다.

나. 자극어휘 표현 평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각 조건별로 세 개의 자극어휘 학습이 끝난 다음 자극어휘 표현 평가를 실시하였다. 총 9개의 사물 사진을 각각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이 과제를 이해 할 수 있도록 익숙한 사물을 가지고 연습과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보여주는 사진이 무엇인지 설명해주세요. (컵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 보세요.”라고 하였다. 아동이 구어 또는 몸짓으로 반응할 경우 사회적 강화를 제공하고, 무반응으로 반응할 경우 한 번 더 아이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었으며, 총 2회 이상의 구어 반응 혹은 구어와 몸짓을 동반한 반응을 보일 경우 본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평가에서 검사자는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보세요.”라고 지시한 후, 아동이 반응하는 구어와 몸짓의 반응을 기록하였다. 반응이 없는 경우 한 번 더 질문을 하여 아동에게 기회를 제공하며 아동이 가장 마지막으로 보인 반응을 기록하였다. 아동의 모든 반응은 삼성 SMX-F70 캠코더로 녹화하였다. 녹화한 후 언어 및 몸짓 표현을 상세히 기록하였다. 자극어휘 표현 평가 검사 자극 항목 예시는 <부록-5>에 제시하였으며, 자극어휘 표현 평가 기록지는 <부록-6>에 제시하였다.

[실험조건 1]	무단서 조건에서 3개의 자극물과 어휘제시 후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평가
↓	
[실험조건 2]	모양단서조건에서 3개의 자극물과 어휘제시 후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평가
↓	
[실험조건 3]	기능단서조건에서 3개의 자극물과 어휘제시 후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평가

*실험조건의 순서는 무선적으로 바뀜

<그림-1> 실험조건의 내용과 순서

4. 자료 분석

1) 자극어휘 이해 평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극어휘 이해 평가 시 문항 당 아동의 정반응은 1점, 오반응은 0점으로 채점하였다. 각 실험 조건별 정반응수를 구한 다음, 정반응수를 조건별 문항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조건별 정반응률(%)을 산출하였다. 자극어휘 이해 평가 시 조건별 정반응률(%)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단서조건의 정반응률(\%)} = \frac{\text{유단서조건의 정반응수}}{\text{유단서조건 문항수}} \times 100$$

$$\text{무단서조건의 정반응률(\%)} = \frac{\text{무단서조건의 정반응수}}{\text{무단서조건 문항수}} \times 100$$

$$\text{모양단서조건의 정반응률(\%)} = \frac{\text{모양단서조건의 정반응수}}{\text{모양단서조건 문항수}} \times 100$$

$$\text{기능단서조건의 정반응률(\%)} = \frac{\text{기능단서조건의 정반응수}}{\text{기능단서조건 문항수}} \times 100$$

2) 자극어휘 표현 평가

아동이 표현한 모든 구어와 몸짓을 기록한 후 분석하였다. 구어의 경우 아동이 표현한 자극어휘를 포함한 기타 언어 반응을 전사하였으며, 몸짓의 경우 아동이 보인 손의 움직임을 묘사하였다(예: 오른손으로 주먹을 쥔 채 바닥을 향해 누른다). 아동이 보인 구어와 몸짓을 구어유형과 몸짓유형으로 분류하여 표에 기록한 후 몸짓유형은 다시 모양몸짓, 기능몸짓, 기타몸짓으로 분류하였다(<표-4>참고). 구어유형의 경우 이전에 제시된 자극어휘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 정반응으로 처리하여 1점을 부여하였다. 몸짓유형의 경우 제시된 몸짓의 형태로 표현하는 경우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몸짓을 보일 경우 정반응으로 처리하여 1점을 부여하였다. 그 외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전혀 관련 없는 반응을 하는 경우 채점에서 제외하였으며, 기타몸짓유형에서는 제시한 몸짓 유형이 아니지만 사물의 모양이나 기능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로 분류하였다. 자극어휘 표현 유형 및 정의는 <표-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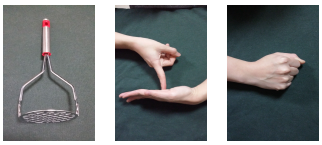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4> 자극어휘 표현 유형 및 정의

자극어휘 표현 유형		정의
구어		이전에 제시된 자극어휘로 표현하는 경우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어휘로 표현하는 경우
몸짓	모양몸짓	이전에 제시된 모양몸짓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경우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모양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기능몸짓	이전에 제시된 기능몸짓으로 정확히 표현하는 경우 혹은 그와 매우 유사한 기능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
	기타몸짓	제시한 몸짓이 아니지만 사물과 관련된 모양 혹은 기능 몸짓으로 표현하는 경우(예: 모양몸짓을 제시하였으나 기능몸짓과 유사한 몸짓 표현)

<표-5> 자극어휘 표현 유형의 예시

구어 및 몸짓의 목표	자극어휘 표현유형		아동의 반응 예시
 목표자극어휘 : /까두/	구어		“까두예요.” 혹은 “까도예요.”(유사한 어휘)
	몸짓	모양몸짓	“이렇게(왼손바닥이 위를 향하게 편 다음 오른손 검지 왼손바닥 중앙에 세운다) 생겼어요.”
		기능몸짓	“이렇게(오른손 주먹을 쥔 다음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하는 거예요.”

각 유형별 반응률을 산출하였다. 각 유형 별 반응수를 구한 다음, 반응수를 각 문항수로 나눈 후 100을 곱하여 유형별 반응률(%)을 산출하였다. 자극어휘 표현 평가 시 유형별 반응률(%)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ext{구어 표현 반응률(\%)} = \frac{\text{구어 표현 반응수}}{\text{전체 문항수}} \times 100$$

$$\text{몸짓 표현 반응률(\%)} = \frac{\text{몸짓 표현 반응수}}{\text{몸짓단서 문항수}} \times 100$$

$$\text{모양몸짓 표현 반응률(\%)} = \frac{\text{모양몸짓 표현 반응수}}{\text{모양몸짓단서 문항수}} \times 100$$

$$\text{기능몸짓 표현 반응률(\%)} = \frac{\text{기능몸짓 표현 반응수}}{\text{기능몸짓단서 문항수}} \times 100$$

5. 통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PASW Statistic 21 (SPSS 21.0)을 사용하여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1)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검정의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이란 모집단의 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 실시하는 통계방법으로 두 개의 관련된 모집단의 중위수를 비교할 경우 사용되는 비모수 검정 통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의 수가 적고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비모수검정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Friedman 검정(Friedman test)을 실시하였다. Friedman 검정이란 모집단의 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는 짝을 이루는 세 개의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는 비모수 검정 통계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규분포를 만족하지 않는 데이터의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Friedman 검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되었다.

2) 자극어휘 표현 유형 차이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표현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6. 평가자간 신뢰도

몸짓 단서에 따른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의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분석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자 이외에 대학원에서 언어치료를 전공한 제2 평가자와 평가자간 신뢰도(inter-rater reliability)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검사 과정은 신뢰도 산출을 위해 녹화 하였으며 이후 평가자간 신뢰도 측정은 전체 자료의 25%를 무선 추출하여 본 연구자와 제 2 평가자 간의 자료를 독립적으로 기록 및 분석한 후 두 자료 간의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자극어휘 이해 평가 분석 시 각각 자료를 독립적으로 채점한 후 정오반응의 여부에 따라 일치한 문항수를 기준으로 일치도(agreement)를 산출하였다. 자극어휘 표현 평가 분석 시 각각 자료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반응과 유형을 기록한 다음 반응유형에 대해 일치한 문항수를 기준으로 일치도를 산출하였다. 일치도는 평가자간 일치된 항목의 수치를 전체 항목의 수치로 나눈 다음 100을 곱하여 계산하였다. 그 결과 자극어휘 이해 평가 일치도 100%, 자극어휘 표현 평가 일치도 94.44%로 나타났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Ⅳ. 연구 결과

1.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

1)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단서조건 정반응율과 유단서조건 정반응율을 산출했으며 기술통계 결과는 <표-6>과 같다. 대상 아동별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반응 빈도를 <부록-7>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무단서일 경우 자극어휘 이해 비율은 중위수 33.33(사분위수 범위 0-74.99), 유단서일 경우 자극어휘 이해 비율은 중위수 33.33(사분위수 범위 12.49-37.49)로 나타났다.

<표-6>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25	50(중위수)	75
무단서(n=10)	39.99	40.97	0	33.33	74.99
유단서(n=10)	28.33	20.86	12.49	33.33	37.49

(단위 : %)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몸짓단서를 제시했을 때와 제시하지 않을 때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Z=-5.222$, $p=.602$). 검정결과는 <표-7>에 제시하였다. 몸짓단서를 제시했을 때나 제시하지 않았을 때 자극어휘 이해 비율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7>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평균순위	순위합	Z	유의확률
무단서	6.50	32.50	-.522	.602
유단서	4.50	22.50		

2)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무단서조건의 정반응률, 모양몸짓조건의 정반응률, 기능몸짓조건의 정반응률을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는 <표-8>과 같다. 무단서조건에서 자극어휘 이해 비율은 중위수 33.33(사분위수 범위 0-74.99), 모양몸짓조건에서 자극어휘 이해 비율 중위수 0(사분위수 범위 0-49.99), 기능몸짓조건에서 자극어휘 이해 비율 중위수 33.33(사분위수 범위 0-41.66)으로 나타났다.

<표-8>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25	50(중위수)	75
무단서조건(n=10)	39.99	40.97	0	33.33	74.99
모양몸짓조건(n=10)	26.66	40.97	0	0	49.99
기능몸짓조건(n=10)	29.99	24.59	0	33.33	41.66

(단위 : %)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Fried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가지 조건에서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913). 검정결과는 <표-9>에 제시하였다. 무단서조건, 모양몸짓조건, 기능몸짓조건에 따라 자극어휘를 이해하는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9>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의 차이

	평균순위	카이제곱	자유도	유의확률
무단서조건	2.05			
모양몸짓조건	1.90	.182	2	.913
기능몸짓조건	2.05			

2. 자극어휘 표현 유형 차이

1)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의 차이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어반응률과 몸짓반응률을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는 <표-10>과 같다.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 표현 중위수 0(사분위수 범위 0-2.77), 몸짓 표현 중위수 24.99(사분위수 범위 0-37.49)로 나타났다.

<표-10>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25	50(중위수)	75
구어 표현(n=10)	3.33	7.49	0	0	2.77
몸짓 표현(n=10)	23.33	23.82	0	24.99	37.49

(단위 : %)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구어표현과 몸짓표현 비율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나(Z=-1.951, p=.051), 유의수준 .051로 경향성이 있었다.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표현에 비해 몸짓표현의 비율이 높은 경향성이 있었다. 검정결과는 <표-11>에 제시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표-11>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표현 비율 차이

	평균순위	순위합	Z	유의확률
구어 표현	2.50	2.50	-1.951	.051
몸짓 표현	4.25	25.50		

2) 자극어휘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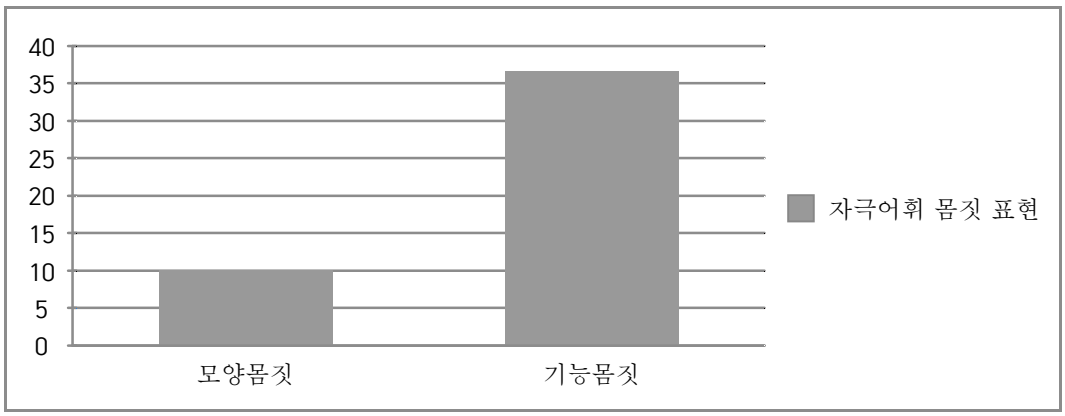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자극어휘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모양몸짓 반응률, 기능몸짓 반응률을 산출하였으며 기술통계는 <표-12>와 같다. <그림-2>는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 표현 중위수 0(사분위수 범위 0-33.33), 기능몸짓 표현 중위수 33.33(사분위수 범위 0-66.66)으로 나타났다.

<표-12>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 차이의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범위		
			25	50(중위수)	75
모양몸짓(n=10)	9.99	16.09	0	0	33.33
기능몸짓(n=10)	36.66	36.68	0	33.33	66.66

(단위 : %)

<그림-2>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의 비율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극어휘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검증하기 위해 Wilcoxon 부호 순위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표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Z=-2.041, p=.041). 자극어휘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에 비해 기능몸짓의 비율이 높았다. 검정결과는 <표-13>에 제시하였다.

<표-13> 자극어휘 몸짓 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 비율의 차이

	평균순위	순위합	Z	유의확률
모양몸짓	0	0	-2.041	.041*
기능몸짓	3	15		

*p<.0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3~4세 언어발달지체아동의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습득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 가지 몸짓단서(무단서조건, 모양단서조건, 기능단서조건)에서 자극어휘를 제시한 뒤,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와 자극어휘 표현 유형의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

몸짓단서의 유무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정확도 연구 결과 3~4세 언어발달지체아동들은 몸짓단서를 제공했을 때나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자극어휘 이해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새로운 단어를 학습하는데 있어 몸짓단서가 어휘와 함께 제시된 경우 해당 어휘를 더 잘 습득 하였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지는 않았다(Weismer & Helsketh, 1993; 이진희, 2008; 이효미, 2009; 지정희, 2012). 본 연구에서는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몸짓단서의 유무가 어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와 달리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김성수(2004)를 살펴보면 단순언어장애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낮은 기억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제한된 기억능력이 언어발달지체아동으로 하여금 새로운 어휘를 단기간에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했을 수도 있다.

몸짓단서의 유무가 어휘 이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 선행연구에는 먼저, Weismer와 Helsketh(1993)는 일반아동과 단순언어장애 아동을 비교하여 시각적 단서가 새로운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두 집단 모두 몸짓과 같은 시각적 단서가 동반될 경우 빠른 연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새로운 어휘 습득에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이진희(2008)의 연구에서도 2세~5세 취학전 일반 아동을 대상으로 몸짓 단서 유무에 따른 어휘 습득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몸짓단서를 제시한 상황이 어휘습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또한 지정희(2012)는 24~36개월의 말 늦은 유아(late talker)와 생활연령을 일치시킨 일반아동의 빠른 연결 능력을 살펴본 결과 정상유아 집단에서는 몸짓 노출 조건에서 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짓 비노출 조건에서보다 유의하게 높은 이해점수를 보여 몸짓이 낱말을 이해할 때 촉진시키는 요소로 작용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지정희의 연구에서는 말 늦은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 만큼의 유의하게 어휘를 습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나,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몸짓단서를 제공했을 때 자극어휘 이해 비율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본 연구와 그 결과가 유사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을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모양조건과 기능조건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몸짓단서 유무에 따른 자극이해 정확도와 몸짓단서에 따른 자극어휘 이해 비율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점은 언어발달지체 아동들이 보이는 특성과 관련지어 설명 할 수 있다. 첫째, 언어발달지체아동은 전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의도를 알아채거나 표현하는 빈도에서 일반아동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Paul, 1991; Rescorla & Fechnay, 1996; Yoder & Warren, 1999).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몸짓 단서를 제공하였을지라도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몸짓을 통해 의사소통을 시도하려는 의도가 낮을 뿐 아니라 상대방의 몸짓을 파악하는 데에도 덜 관심을 보였을 것이다. 둘째, 빠른 연결(fast mapping)의 어려움으로 인함이다(Alt, Plante, & Greusere, 2004; Gray & Brinkely, 2011; Rice, Buhr, & Nemeth, 1990; Rice, Buhr, & Oetting, 1992; 지정희, 2012). 빠른 연결이란 아동이 새로운 어휘에 대해 최소한의 노출로 낱말이 지칭하는 사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떠올리고 해당 어휘의 음운형태와 연합시켜 어휘를 이해하는 과정을 말한다(Carey 1978; Rice, 1989).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어휘 결함은 빠른 연결 기술의 결함으로 설명되는데(Carey, 1978; Dollaghan, 1987), 일반아동에 비해 언어발달지체 아동은 새로운 낱말에 직면할 경우 기존의 이름으로 명명된 적이 없는 새로운 사물에 연합시키는데 어려움을 보인다(Markman, 1991; 김성수, 2005).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휘습득과정은 빠른 연결능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에 어려움이 있는 언어발달지체아동은 몸짓단서를 제시한 상황에서도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데 결함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서의 빈도가 적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들에서 빠른 연결을 통한 어휘 습득의 조건으로 자극빈도를 강조하였는데(김강애, 1999; 마송희, 1998; Rice et al.,1994), Capone과 McGregor(2005) 및 Capone(2007)은 총 4일에 걸쳐 각 사물에 대해 세 번의 자극을 주었으며, 지정희(2012)는 두 조건에서 각각 세 번의 자극을 주어 본 연구에서 준 것보다 더 많은 빈도의 자극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 회기에만 자극을 제시하였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므로, 이러한 낮은 자극의 빈도가 자극어휘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언어발달지체 아동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암묵적 학습(implicit learning)의 결함이다(Plante, Gomez, & Gerken, 2002; Tomblin, Mainela-Arnold, & Zgang, 2007). 암묵적 학습이란 학습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것을 말한다(Reber, 1967). 연구들은 암묵적 학습기술이 언어를 처리하는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는데,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경우 일반아동과 암묵적 학습의 수행력에서 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차이가 언어 수행력에 나타나는 차이를 결정하는 기저 요인이 된다고 설명하였다(Conway et al., 2010). 본 연구에서도 암묵적 학습의 형태로 자극어휘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학습방법으로 인해 본 연구의 대상인 언어발달지체아동들은 낯선 어휘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후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암묵적 학습보다는 명시적 학습의 과정으로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이해 비율 결과에 관련된 선행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Capone과 McGregor(2005)는 27~30개월의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익숙하지 않은 사물을 통해 새로운 어휘를 학습 할 때 의미적 정보를 제공하는 몸짓 단서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 기능단서보다 모양단서에서 단서가 없이도 어휘를 더 잘 기억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효미(2009)는 일반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의미단서에 따른 빠른 연결 능력을 비교한 후 일반아동 집단에서 기능몸짓보다 모양몸짓이 어휘 학습에 더 도움이 되며 모양몸짓을 통해 어휘 이해가 더 쉽다고 밝혔다. 반면 이진희(2008)의 결과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는데, 취학 전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몸짓단서가 어휘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일반아동을 대상으로 했음에도 모양조건과 기능조건 간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극어휘 표현 유형 차이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에게 3가지 단서조건(무단서조건, 모양단서조건, 기능단서조건)에서 자극어휘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자극어휘 표현 유형의 차이를 알아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보았다. 먼저,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을 사용하는 비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 결과는 선행연구 결과와 다르게 나타났다(Botting et al., 2010; Capone, 2007; Iverson & Braddock, 2011; Leonard, 1998; Rescola & Fechnay, 1996). 본 연구에서는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 비율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실험 시 연구자가 제시한 몸짓이 아닌 창조적으로 만들어 표현하는 몸짓의 양이 더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창조적인 몸짓은 기타 몸짓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정반응에 해당하는 몸짓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에는 본 연구와 같이 제시된 몸짓을 기억하여 표현하는 유형만이 아닌 자발적인 몸짓표현의 양과 종류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극어휘 표현 시 구어와 몸짓을 사용하는 비율의 결과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구어에 비해 몸짓의 사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verson과 Braddock(2011)는 언어장애아동 11명과 일반아동 16명을 대상으로 몸짓과 운동기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언어가 손상되는 경우 몸짓이 보상역할을 하기 때문에 언어장애아동의 경우 언어에 비해 몸짓 사용의 비율이 높았다고 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와는 대상자 수에서 차이를 보이고, 또한 몸짓과 운동기술의 관련성에 대해 살펴본 연구였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Wetherby, Yonclass와 Bryan(1989)의 연구에서는 말 늦은 유아는 의사소통의도를 산출하는 상황에서 주로 몸짓 혹은 몸짓과 발성을 함께 사용한다고 하였으며, Rescola와 Fechnay(1996) 또한 말 늦은 유아는 정확한 구어보다 주로 몸짓 혹은 가리키기와 같은 비구어적인 의사소통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본 연구결과 자극어휘에 대한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을 산출하는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는데 모양몸짓에 비해 기능몸짓의 산출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 아동이 자극어휘에 대한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에 비해 기능몸짓의 비율이 높았던 것은 아동의 초기 어휘 발달과도 연관 지을 수 있다. 초기 어휘 발달은 명사, 동사, 형용사 순서로 발달한다(김영태, 2014). 연구에서 제시한 모양몸짓은 사물의 모양을 묘사한 것으로 품사 중에서 형용사와 성격이 유사하며, 기능몸짓은 사물의 기능을 묘사한 것으로 동사와 성격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동사와 성격이 유사한 기능몸짓을 형용사와 유사한 모양몸짓에 비해 먼저 습득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언어발달지체아동이 자극어휘 표현할 때 연구자가 제시하지 않은 모양몸짓이나 기능몸짓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제시조건은 모양몸짓조건이었으나 자극어휘를 표현할 때 기능에 해당하는 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짓으로 표현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몸짓은 기타몸짓으로 분류되었는데, 기타몸짓 중에서도 기능과 관련된 몸짓의 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 역시 앞서 놀이 경험이 사물의 기능에 관한 특성을 더 고려하게 한다는 Kemler Nelson(1999)의 설명을 지지한다.

몸짓표현 시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의 산출 비율의 차이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먼저, Landau, Smith와 Jonse(1988)는 2세, 3세, 성인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크기, 재질, 모양으로 변형된 도형을 가지고 어휘와 무의미어휘를 연결하는 실험을 한 결과 크기, 재질, 모양의 특성 중에서 모양 특성과 단어를 연결할 때 높은 반응성을 보였다. 그러나 몸짓단서를 제시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 Capone과 McGregor(2005)도 2세 아동을 대상으로 몸짓 단서(모양단서, 기능단서)를 제시하여 새로운 어휘 습득을 살펴본 결과, 새로운 단어와 참조물 연결 과제에서 모양단서와 관련된 정보가 주어질 때 높은 수행률을 보였다. 그러나 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3~4세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므로 어휘발달의 추이가 급격히 변화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차이는 아동이 발달할수록 모양몸짓에서 기능몸짓으로 그 사용패턴이 변화한다는 Merriman, Scott과 Marazita(1993)의 연구를 통해 설명될 수 있다. Merriman, Scott과 Marazita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형태와 기능의 역할도 발달적 변화를 보이는 과정을 '외양에서 기능으로의 전환(Apperance - Function Shift)'(p.1)이라고 지칭하였다. 즉, 몸짓의 유형 또한 연령에 따라 모양에서 기능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

몇 연구들은(Subrahmanyam, 1995; Ward et al., 1991) 본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자극어휘 표현 시 모양몸짓에 비해 기능몸짓의 산출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Ward 외(1991)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낯선 어휘의 의미에 대한 추론과제를 실시하였는데, 아동들은 그림자극의 모양보다는 기능적인 특성에 기반하여 추론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Subrahmanyam(1995)은 3세, 4세와 성인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낯선 사물에 관한 어휘의 의미를 추론하는 과제에서 명칭과 기능 조건을 제시 한 결과, 성인의 경우 기능조건을 제시했을 때 의미추론 비율이 높았으나 아동의 경우 형태와 기능을 모두 고려하여 의미추론을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본 연구에서도 기능몸짓이 모양몸짓에 비해 높은 비율로 나타났는데, 아마도 그 이유는 아동이 자극어휘를 학습하는 동안 해당 사물을 가지고 놀며 그 기능을 경험했기 때문일 수 있다. Kemler Nelson(1999)의 연구에서도 2세 아동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 대상물을 조작해 본 경험이 없는 경우 모양에 근거한 반응이 우세하게 나타났지만, 조작해본 경험이 있는 경우 새로운 어휘를 연상할 때 기능적인 특성을 더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놀이 시 아동이 대상물을 조작해 본 경험이 새로운 어휘를 표현 할 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언어발달지체 아동에게 몸짓단서 조건이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지만, 어휘를 표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조작해본 경험에 따라 기능적인 몸짓 산출로 연결지어 어휘를 표현하는 것이 흥미로웠으며, 학습되지 않은 형태의 몸짓으로도 이해한 어휘를 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실시하면서 기능 몸짓이 아동의 자발적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Gaines et al., 1988; Goldstein & Wickstrom, 1986; 김민영・이소현, 2006; 이상훈・문진선. 2006). 몸짓을 통한 중재는 주로 인지적 손상을 입은 교통사고 환자 혹은 TBI환자에게 적용 될 뿐만 아니라(Beukelman & Mirenda, 2005), ASD 아동, 지적장애 아동 등에게도 활용할 수 있다(강은희, 2012; 김정연・박은혜, 2006). 따라서 언어발달지체아동에게도 어휘 중재 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어휘 중재를 유도하며 몸짓단서를 함께 제시하여 아동이 좀 더 원활하게 어휘를 습득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재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3. 제한점 및 제언

본 연구는 3~4세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습득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으나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제한점을 언급하고 후속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본 연구는 대상자의 수가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후속연구에서 많은 수의 대상자를 모집하여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연구방법 측면에서 자극물을 가지고 놀이하는 시간 동안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놀이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았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측면에서 연구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좀 더 엄격히 통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본 연구 과제는 조건 당 자극어휘가 3개씩 총 9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 습득에 대하여 충분히 살펴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 더 많은 문항수를 구성하여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본 연구에서 자극어휘 제시 빈도가 적어 아동이 충분히 어휘를 습득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추후 연구 시 자극어휘 제시 빈도를 늘린다면 좀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참 고 문 헌

강은희(2012). 제스처 중재가 자폐범주성 장애 아동의 자발적 구어 향상에 미치는 효과. 『언어치료연구』, 21(2), 137-148.

김강애(1999). 일반아동과 정신지체아동의 새로운 명사와 동사에 대한 초기낱말습득(fast mapping)능력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 논문.

김민영・이소현(2006).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가 자폐 아동의 자발적인 기능적 의사소통 행동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 5(2), 31-56.

김성수(2004).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기능적 작업기억과 낱말 습득 특성. 『언어청각장애연구』. 9(1). 78-99.

김성수(2005). 낱말 간 음운적 유사성이 단순언어장애 아동의 빠른 연결(fast-mapping) 수행 전략에 미치는 영향. 『언어청각장애연구』. 10(1). 25-42.

김영태(2014). 『아동언어장애의 진단 및 치료』. 서울: 학지사.

김영태・성태제・이윤경 (2003).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척도』. 서울:장애인 종합 복지관.

김의향(2006). 7-24개월 영아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 습득 간의 관계. 『한국아동학회』, 27(6), 217-234.

김정연・박은혜(2006). 손짓기호체계와 그림의사소통을 이용한 의사소통 중재가 중도뇌성마비학생의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지체 중복 건강장애 연구』, 47(1), 265-289.

김향희・김정완・허지희・김덕용・성수진(2008). 실어증 선별검사를 위한 내용타당도 검증. 『언어청각장애연구』, 13(3), 253-380.

마송희(1998). 이야기 들려주기가 유아의 어휘 습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8(2). 215-237.

박현주(2013). 3-5세 일반아동과 경도지적장애아동의 도상적 제스처 이해 및 표현 특성 비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박사학위논문.

신민섭・조수철(2012). 『한국판 라이터 비언어성 지능검사』. 서울: 학지사심리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사연구소.

안소정(2010). 문법형성단계 아동의 세부 몸짓 사용 비율의 변화 : 참조적 몸짓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석사학위논문.

안소정・방희정・이순행(2010). 문법형성단계 2-3세 아동의 세부 몸짓 사용 비율의 변화 : 사상적 몸짓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발달』, 23(1). 33-50.

이상훈・문진선(2006). 환경중심 의사소통 중재가 자폐 아동의 자발적 발화와 반향어 산출에 미치는 효과. 『정서・행동장애연구』, 22(1), 49-77.

이진희(2008). 손짓 단서가 일반 아동의 일견단어학습(fast mapping)을 통한 어휘 이해력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 협동과정 석사학위논문.

이효미(2009). 일반 아동과 지적장애 아동의 의미단서에 따른 빠른 연결(fast-mapping) 능력 비교.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언어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장유경・최윤영・김소연(2005). 한국 영아의 초기 의사소통 몸짓의 발달. 『아동학회지』, 26(1), 155-167.

지수진(2011). 말 늦은 영유아(late-talker)의 의사소통적 몸짓과 어휘사용간의 관계. 한림대학교 보건과학대학원 언어치료전공 석사학위논문.

지정희(2012). 몸짓(gesture)이 말 늦은 유아(late talker)의 빠른의미연결(fast-mapping)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전공 석사학위논문.

최윤희(1996). 발달 장애 유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행동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한지연・정옥란(2000). 단순언어장애 아동과 정상 아동의 빠른 연결(fast mapping)에 대한 비교. 『언어치료연구』, 9(2), 23-39.

홍경훈・김영태(2005). 말 늦은 아동의 표현어휘발달 예측을 위한 의사소통의도 산출특성 종단연구. 『유아특수교육연구』, 7(1), 97-115.

Alt, M., Plante, E., & Creusere, M. (2004). Semantic features in fast-mapping: performance of preschoolers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versus preschoolers with normal language.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2), 407-420.

Beukelman, D., & Mirenda, P. (2005). *Augmentative and alternative communication*. Management of severe communication disorders in children and adults. Baltimore : Paul H. Brooks Publishing Co.

Botting, N., Riches, N., Gaynor, M. & Morgan, G. (2010). Gesture production and comprehension in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The British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28*, 51-69.

Bloom, L. (1973). One Word at a Time : The use of single-word utterance before syntax. The Hague : Mouton.

Carey, S. (1978). The child as a word learner. In M. Halle, J. Bresnan & G. A. Miller (Eds), Linguistic theory and psychological reality (pp. 264-293).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rey, S. & Bartlett, E. (1978). Acquiring a single new word. *In Papers and Reports on Child Language Development, 15*, 17-29.

Capir, ci. O., Iverson, J. M., Pizzuto, E. & Volterra, V. (1997). Gestures and words during the transition to two-word speech. *Journal of Child Language, 23,* 645-673.

Capon . N. C. (2007). Tapping toddlers' evolving semantic representation via gestur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0*, 732-745.

Capone. N. C. & McGregor. K. L. (2005) The effect of semantic representation on toddlers' word retrieval.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8*, 1468-1480

Capone, N. C., & McGregor, K. K. (2004). Gesture development : A review for clinical and research practice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47*(1), 173-186.

Cohen, R. L. & Borsoi, D. L. (1996). The role of gestures in description - communication : A cross sectional study of aging. *Journal of*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onverbal Behavior, 20(1), 45-63.

Conway, C. M., Baurnschmidt, A., Huang, S., & Pisoni, D, B. (2010). Implicit statistical learning in language processing : Word predictability is the key. *Cognition, 114*(3), 356-371.

Dallaghan, C. A. (1987). Fast mapping in normal and language-impai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2*, 218-222.

Fehring. R. J.(1987). Methods to validate nursing diagnoses. *Hart and Lung, 16*(6), 625-629.

Gaines, R., Monahan, C., Leaper, C., & Weickgenant, A. (1988). Language learning and retention in young language-disordered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rders, 18*(2), 281-296.

Goldin-Meadow, S. (2000). Beyond words : The importance of gesture to researchers and learners. *Child Development, 71*(1), 231-239.

Golindoff, R. M. & Hirsh-Pasek, K. (1999). How babies talk : The magic and mystery of language in the first three years of life. New York, NY : Dutton.

Goldstein, H. & Wickstrom, S. (1986). Peer intervention effects on communication interaction among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preschooler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9*, 209-214.

Gray, S. & Brinkley, S. (2011). Fast mapping and word learning by preschoolers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in a supported learning context : effect of encoding cues, phonotactic probability and object familiarity.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 870-884.

Iverson, J. M. & Goldin-Meadow, S. (2005). Gesture paves the way for language development. *Psychological science, 16*(5), 367-71.

Iverson, J. M. & Braddock, B. A. (2011). Gesture and motor skill in relation to language in children with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4*(1). 72-86.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Jüurgen, S. (2008). Depicting by gesture. *Gesture, 8*(3), 285 - 301.

Kemler Nelson, D. G. (1999). Attention to functional properties in toddlers' naming and problem-solving. *Cognitive Development, 14*, 77-100.

Landau, B., Smith, L. B., & Jonse, S, S.(1988). The importance of shape in early lexical learning. *Cognitive Development, 3*, 299-321.

Leonard, L. B. (1998).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Cambridge, MA: MIT Press.

Markman, E. (1991). The whole-object, taxonomic and mutual exclusivity assumptions as initial constraints on word meanings. In M. J. P. Byrnes & S. A. Ezelman (Eds.). Perspectives on Language and cognition: Interrelations and development.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Merriman, W. E., Scott, P, E., & Marazita, J. (1993). An appearance-function shift in children's object naming. *Child Language, 20*, 102-108

McEachern, D. & Haynes, W. (2004). Gesture-speech combinations as a transition to multi word utterances. *American Journal of Speech Language Pathology, 13*, 227 - 235.

McNeill, D. (1998). Speech and gesture integration. In J. Iverson & S. Goldin - Meadow(Eds.), The nature and functions of gesture in children's communication(pp.11-27). San Francisco: Jossey-Bass Inc.

Namy, L. L., Campbell, A., & Tomasello, M. (2004). The changing role of iconicity in non-verbal symbol learning : A u-shaped trajectory in the acquisition of arbitrary gestures. *Journal of Cognition and Development, 5*(1), 37 - 57.

Nicoladis, E. (2002). Some gestures develop in conjunction with spoken language development and other don't : Evidence from bilingual preschooler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26*(4). 241-266.

Nicoladis, E., Mayberry, R. I. & Genesee, F. (1999). Gesture and early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bilingu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logy, 35*, 514-526.

Oetting, J., Rice, M., Swank, L. (1995). Quick Incidental learning(QUIL) of by school-age children with and without SLI.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 344-355.

Ozcaliskan, S. & Goldin-Meadow, S. (2009). When gesture-speech combinations do and do not index linguistic change. *Language and Cognitive processes, 24*(2), 190-217.

Paul, R. (1991). Profiles of toddlers with expressive language development. *Topics in Language Disorders, 11*(4), 1-13

Poggi, I. (2008). Iconicity in different types of gestures. *Gesture, 8*(1), 45-61.

Plante, E., Gomez, R., & Gerken, L .(2002). Sensitivity to word order cues by normal and language/learning disabled adults. *Journal of Communication Disorders, 35*, 453-462

Reber, A. S. (1967). Implicit learning of artificial grammars.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5*, 855-863.

Rescrola, L. & Fechnay, T. (1996). Mother-Child synchrony and communicative reciprocity in late-talking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9*, 200-208.

Rice, M. L. (1989). Children's language acquisition. *American psychologist, 44*(2), 149-156.

Rice, M. L., Buhr, J. & Nemeth, M. (1990). Fast Mapping word-learning abilities of language-delayed preschooler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5*, 33-42.

Rice, M. L., Buhr, J., & Oetting, J. (1992). Specific-language-impaired children's quick incidental learning of word : The effects of a pause.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5*, 1040-1048.

Rice, M. L., Oetting, J., Marquis. J., & Pae, S. (1994). Frequency of input effects in SLI children's word comprehensio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7*, 106-12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Rice, M. L., Smolik, F., Perpich, D., Thompson, T., Rytting, N. & Blossom, M. (2010). Mean Length of utterance Levels in 6-Month Intervals for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53*, 333-349.

Stark, R. E. & Tallal, P. (1981). Selection of children with specific language deficits.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46*(2), 114-122.

Subrahmanyam, K. (1995). Children's representation of artifacts - appearance or functionally based? paper presented at biennial meeting of the SRCD.

Terrel, B. Y. & Schwartz, R. G. (1988). Object transformations in the play of language-impaired childre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3*, 459-466.

Thal, D. & Tobias, S. (1994). Relationships between language and gesture in normally developing and late-talking toddlers.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7*(1). 157-170.

Thal, D., Tobias, S., & Morrison, D. (1991). Language and gesture in late talkers a 1 year follow up.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4*(3), 604-612.

Tomblin, B., Mainela-Arnold, E., & Zhang, X. (2007). Procedural learning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Child Language Learning and Development, 3*, 269-293.

Ward, T. B., Becker, A. H., Hass, S, D., & Vela, E. (1991). Attribute availability and the shape bias in children's category generalization. *Cognitive Development, 6,* 143-167.

Wetherby, A. M., Yonclas, D, G., & Bryan, A, A.(1989). Communicative profiles of preschool children with handicaps : Implications for early identifica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s. 54*, 148-158.

Weismer, S. E. & Hesketh, L. J. (1993). The influence of prosodic and gestural cues in novel word acquisition by children with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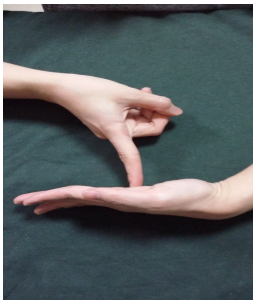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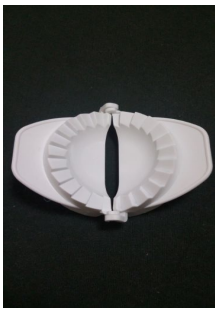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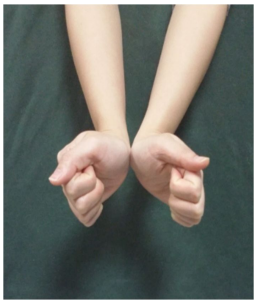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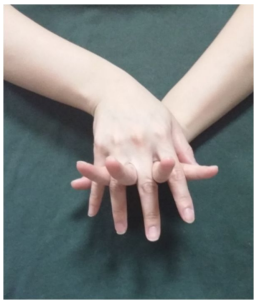
specific language impairment.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6*, 1013-1025.

Yoder, P., & Warren, S. (1999). Material responsiv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linguistic intentional communication and later language. *Journal of Early Intervention. 22*, 126-136.

Collection @ cho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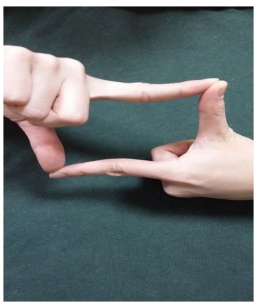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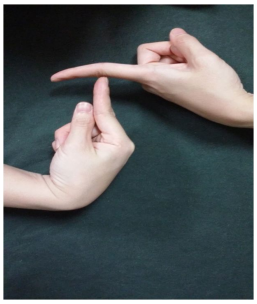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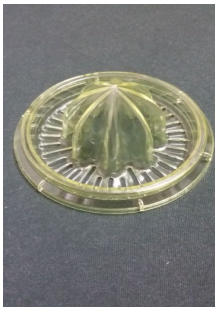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1> 자극물, 자극어휘 및 몸짓단서

자극물	자극 어휘	모양몸짓 (사물의 모양을 묘사)	기능몸짓 (사물의 기능을 묘사)
	까두		오른손 손등이 오른쪽을 향하게 하여 주먹을 쥐고 위 아래로 내리누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트배		손등이 아래로 향하게 하여 양손을 가볍게 주먹을 쥔 다음 위를 향해 부채꼴모양을 그리며 손가락이 닿도록 한다.
	가퍼		오른손 손등이 아래를 향하게 주먹을 쥔 다음 앞뒤로 왔다 갔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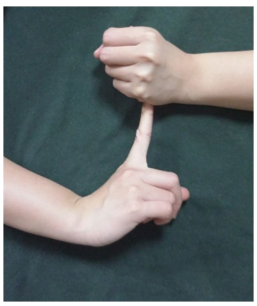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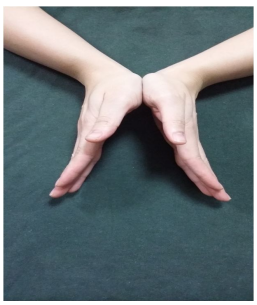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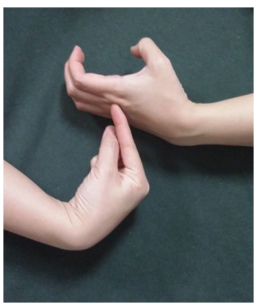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뽀매		오른손으로 손등이 위로 향하게 주먹을 쥔 다음 앞뒤로 밀며 자르는 흉내 낸다.
	포누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하여 두 손을 주먹을 쥔 다음 나란히 하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 누리는 것을 반복한다.
	떠미		오른손 손가락을 거미처럼 세운 다음 나사를 조이듯이 둥글게 돌리는 것을 반복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허꼬		오른손 손등이 앞을 향하게 주먹을 쥔 다음 손목을 위 아래로 흔든다.
	카대		왼손은 손등이 아래를 향하도록 하여 주먹을 쥔채 가만히 있고, 오른손은 손등이 위를 향하게 하여 주먹을 쥔 다음 위에서 아래로 포물선을 그리며 왼손을 향해 내려간다.
	느비		엄지손가락 두 개를 편 다음 나머지 손가락은 주막을 살짝 쥐고 엄지손가락 두 개를 가운데를 향해 누르는 행동을 반복한다.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2> 자극어휘 타당도 설문지

자극어휘 타당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난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3~4세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습득능력에 대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이전에 접해본 적이 없는 자극 어휘(nonsense word)로 자극 어휘 9개를 구성하였습니다. 동사에 비해 명사가 아동의 빠른 연결하기에 더 영향을 미치고, 쉽게 습득되는 품사라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자극어휘는 모두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품사인 명사로 연구자가 직접 구성하였습니다. 연구대상의 연령이 3세부터 시작되는 것을 고려 할 때, 음소 난이도가 새로운 어휘를 습득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조음발달상 비교적 늦은 연령대에 습득되는 /ㅈ, ㅊ, ㅉ, ㅅ, ㅆ, ㄹ/를 제외하고 초기에 발달되는 음소를 바탕으로 나머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여 단순한 음운구조인 CVCV구조의 2음절 어휘를 선정하였습니다.

사물에 따른 자극 어휘가 적절한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 부탁드리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의견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 혹은 E-mail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타당도 분석을 위한 평가자에 대한 정보를 기입해 주세요.
1. 최종학력 :_____
2. 2급 이상 자격증 유무 : (유 무)
3. 임상 경력 :_____년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 김난희 올림
연락처 : 010-****-****
E-mail : nh125@naver.com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자극 어휘	자극 사물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비 고
1. 까두		1	2	3	4	5	
2. 트배		1	2	3	4	5	
3. 가퍼		1	2	3	4	5	
4. 뽀매		1	2	3	4	5	
5. 포누		1	2	3	4	5	
6. 떠미		1	2	3	4	5	
7. 허꼬		1	2	3	4	5	
8. 카대		1	2	3	4	5	
9. 느비		1	2	3	4	5	

* 자극어휘와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3> 몸짓의 유효성에 대한 타당도 설문지

몸짓의 유효성에 대한 타당도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김난희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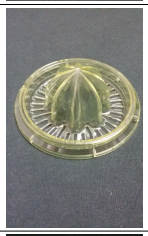
저는 3~4세 언어발달지체아동을 대상으로 몸짓단서에 따른 어휘습득능력에 대한 학위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사용되는 자극물은 9개의 주방용품으로 모두 점토 놀이 시 사용되며 조작이 간편한 사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물 선정 기준은 아동에게 새롭고 낯설며, 모양과 기능이 각각 구별되고, 손으로 잡고 쉽게 조작할 수 있지만, 그 명칭을 알 수 없는 사물들로 구성하였습니다.

각 사물에 해당하는 모양몸짓과 기능몸짓이 적절한지에 대해 5점 척도로 평정 부탁드리며, 적절하지 않은 경우 비고란에 의견도 함께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 혹은 E-mail 주소로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조선대학교 대학원 언어치료학과 석사과정 김난희 올림
연락처 : 010-****-****
E-mail : nh125@naver.com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번호	자극물	모양몸짓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기능몸짓 척도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 4=그런 편이다 5=매우 그렇다	비고
1		1 2 3 4 5	1 2 3 4 5	
2		1 2 3 4 5	1 2 3 4 5	
3		1 2 3 4 5	1 2 3 4 5	
4		1 2 3 4 5	1 2 3 4 5	
5		1 2 3 4 5	1 2 3 4 5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6		1 2 3 4 5	1 2 3 4 5	
7		1 2 3 4 5	1 2 3 4 5	
8		1 2 3 4 5	1 2 3 4 5	
9		1 2 3 4 5	1 2 3 4 5	

* 자극물과 관련하여 모양몸짓 및 기능몸짓과 관련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어 주세요.

d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4> 자극어휘 이해 평가 검사자극 항목 예시

(1)

<부록-5> 자극어휘 표현 평가 검사자극 항목 예시

표현 (1)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6>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평가 기록지

이름 :　　날짜 :

자극 어휘	자극 사물	이해	표현		기타
연습문항		공 숟가락 컵	연습문항	컵 공 숟가락	
1. 까두					
2. 트배					
3. 가퍼					
4. 뽀매					
5. 포누					
6. 떠미					
7. 허꼬					
8. 카대					
9. 느비					
기타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부록-7> 대상 아동별 자극어휘 이해 및 표현 반응 빈도

	자극어휘 이해				자극어휘 표현				
	단서	무단서	모양	기능	구어	몸짓	몸짓		
							모양	기능	기타
아동 1	16.66	66.66	0	33.33	0	0	0	0	0
아동 2	33.33	0	0	66.66	0	66.66	33.33	100	44.44
아동 3	50.00	66.66	100	0	0	0	0	0	11.11
아동 4	66.66	33.33	100	33.33	11.11	33.33	0	66.66	22.22
아동 5	0	33.33	0	0	0	50.00	33.33	66.66	33.33
아동 6	16.66	100	0	33.33	22.22	0	0	0	0
아동 7	33.33	0	0	66.66	0	16.66	0	33.33	55.55
아동 8	33.33	0	33.33	33.33	0	33.33	33.33	33.33	66.66
아동 9	0	100	0	0	0	33.33	0	66.66	55.55
아동 10	33.33	0	33.33	33.33	0	0	0	0	55.55

Collection @ chosun